



가네코 스미코씨

1931년 6월 8일생

1972년에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음.

남편을 미나마타병으로 잃고, 장남은 어렸을 때 미나마타병을 발병하고, 둘째 아들은 태어나서 얼마안돼서 죽음. 셋째 아들은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미나마타병으로 고생한 반생을 이야기함.

2002년 1월부터 미나마타병자료관의 증언인으로 됨.

미나마타시 묘진초 재주

저는, 극중(劇症)형 미나마타병으로 남편과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3명 낳았지만, 장남은 어릴적에 미나마타병에 걸렸고, 둘째 아들은 태어나서 몇 일 안 돼서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입니다.

저는 1951년에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시집간 집앞이 곧 바다였기때문에, 바닷가에 가서 굴조개랑 갯다슬기랑 주어서 식탁에 올리곤 했습니다.

1953년, 2살난 장남이 병에 걸려, 원인불명으로 병원을 여기저기 옮겼습니다. 둘째 아들은 태어나서 29일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남편이 발병하였습니다. 남편도 시내병원에 갔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결국, 구마모토대학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런 병은 처음 본다고 대학병원에서 말했습니다.처음에는 2달 만에 퇴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은 한달에 한번씩 병원에 다녔습니다.

1954년 10월쯤에는 출근해도 된다고 의사가 말할만큼 회복되었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955년이 되어 남편의 병은 심각해졌습니다. 하루 하루 나빠지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월새없이 경련이 들이닥쳐,고통스러워서 병실에서 날뛰곤 하였습니다. 의사는 병원에 맡겨두라고 했지만 불쌍해서 그냥둘 수 없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경련은 심해만질뿐, 1955년 5월 15일 끝내 주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이 발병했을 때 저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배속의 아이도 병에 걸린거 아닌가 하고 불안해서 여러가지 고민끝에 어머니와 상담하자 “모처럼,배은 아이인데 낳아”라고 격려해 주셔서 낳았습니다. 나중에 아이는 태아성 미나마타병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지금 46살입니다. 함께 생활하지만 손발이 자유롭지 못하고, 말도 똑바로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것이 일과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껏 정말 근심과 고생인 나날들 속에서, 주위의 분들의 도움을 빌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이 살아있는 한 일상생활을 똑바로 하고, 환경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